



고객이 감동하는 병원

성가롤로병원

www.stcarollo.or.kr

NEWS

2026년 9월호

제337호 | 월간

등록번호 순천 라 00007
발행인 박명옥 편집인 홍보실
발행처 성가롤로병원
순천시 순광로221
대표전화 061-720-2000
Fax 061-720-6000
홍보팀 061-720-6477~8
인쇄 도서출판 범촌

성가롤로 비전 2030

신뢰와 감동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성가롤로병원

1. 치유자이신 예수성심의 사랑을 실천한다.
2. 책임진료로 고객감동을 실현한다.
3. 지속적인 도전과 혁신으로 지역의료발전에 기여한다.
4. 존중하고 배려하는 행복한 공동체를 만든다.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루카 9,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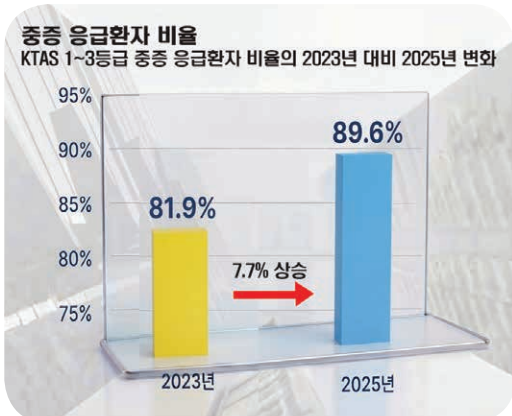
핵심가치

1. 생명존중
2. 전인진료
3. 역량강화
4. 소통과 화합
5. 사랑과 섬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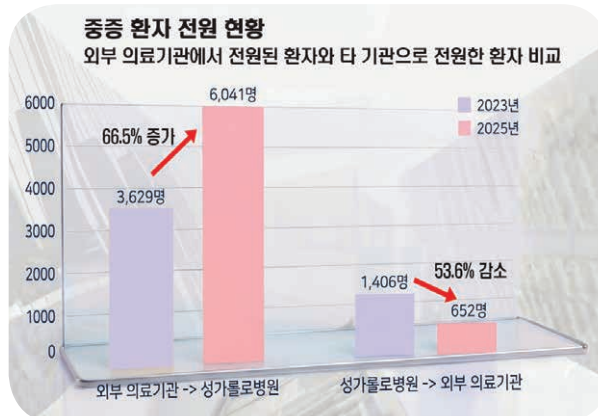


응급의료의 최전선, 권역응급의료센터 10년의 기록

찰나의 순간이 생사를 가르는 응급의료 현장. 그 최전선에서 전남 동부권 주민들의 생명을 지켜온 우리 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가 8월 23일 지정 10주년을 맞이했다. 전남 동부권은 여수·고흥 등 해상과 육상의 연계 이송이 필요한 도서·산간 지역이 혼재해 있어 구조적으로 골든타임 확보가 까다로운 지역이다. 또한 기상 악화나 도로 여건에 따라 접근이 지연되는 취약성을 안고 있으며, 인접한 고흥과 구례 등은 고령화율이 40%를 상회하는 초고령 지역으로, 중증질환 발생 시 이송 지연이 곧바로 치명적인 타격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지리적·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365일 24시간 달려온 우리 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의 발자취는 전남 동부권 응급의료 체계의 든든한 척도가 되고 있다.



2025년 기준 센터를 찾은 내원 환자는 총 34,991명이며, 이 중 중증 응급환자(KTAS 1~3등급) 비율은 89.6%를 기록했다. 중증 응급환자 비율은 2023년 81.9%에서 2025년 89.6%로 상승했다. 외부 의료기관에서 전원된 중증 환자 역시 3,629명에서 6,041명으로 크게 늘어난 반면, 타 기관으로 보낸 전원은 1,406명에서 652명으로 줄어들어 지역 내 최종 치료 완결 능력이 한층 강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전남 동부권역은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8.9만 명, 고령화율 24.3%에 달해 뇌졸중, 심근경색, 패혈증, 낙상 및 외상 등 복합 질환의 위험이 높다.

이와 동시에 여수국가산단, 울촌산단, 포스코제철소 등 대규모 산업단지가 밀집해 있어 화재, 폭발, 화학사고 등 대형 재난 발생 가능성이 상존한다.

이 같은 복합적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는 호남권에서 가장 많은 수준의 응급실 전담 의사(16명)를 비롯해 전문 간호사 51명, 응급구조사 7명, 응급의료정보관리자 4명으로 구성된 든든한 의료인력이 포진해 있다.

또한, 응급실 내 일반 병상(27병상)뿐만 아니라, 위

급한 환자를 집중적으로 돌볼 수 있는 응급 전용 중환자실 29병상과 응급병동 30병상을 운영해 집중 치료 효율을 높였다. 아울러 E-CPR·ECMO·고압 산소치료기 등 중증·특수 치료 장비를 완비하여 심뇌혈관·중환자·중독 치료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내 최종 치료기관이라는 중추적 책무를 다하고 있다. 더불어 3개의 재난의료지원팀(DMAT)을 가동하고 24시간 재난 핫라인 유지, 유관기관 합동훈련 참여를 통해 대형 재난 대응 체계를 공고히 하고 있으며, 권역 내 응급의료종사자와 구급대원 전문화 교육을 통해 지역 전체의 응급 대응 역량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우리 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는 2024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전국 7위라는 높은 성적으로 A등급을 획득하였다. 김재혁 센터장은“권역 인구 77.7만 명의 안전을 책임지는 응급의료 허브로서 지난 10년의 성과를 발판 삼아 앞으로도 지역민의 일상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소임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4차례 심정지에서 건져 올린 생명, 응급 의료진의 팀워크가 만든 기적

올해 초, 다량의 약물을 복용해 의식을 잃은 61세 환자가 심정지 끝에 겨우 자발순환만 회복된 위중한 상태로 우리 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도착했다. 혼수상태에 혈압마저 유지되지 않던 환자는 순환기내과 협진과 임시 심박동기 삽입 후 곧바로 응급중환자실로 입실했다. 반복되는 심정지와 다발성장기부전이 겹친 절체절명의 위기였다. 의료진은 즉각 저체온치료(TTM)와 응급 신대체요법(CRRT)을 시행했다. 잇따른 난치성 쇼크 속에 김재혁 센터장을 필두로 한 응급중환자실 의료진은 24시간 환자 곁을 지키며 실시간으로 대응했고, 입실 4일째에는 체외막산소공급치료(ECMO)를 단행했다. 밤낮없는 헌신 끝에 입실 6일째부터 회복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했다. 입실 7일째부터 ECMO와 인공호흡기를 순차적으로 제거했고, 8일째 스스로 눈을 뜨며 의식을 회복했다. 일반병동으로 전실하는 날, 환자의 딸은 “엄마를 돌려주셔서 감사하다”며 의료진에게 진심 어린 인사를 전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어린이 환경인형극’ 개최

우리 병원은 8월 26일 별관 성심홀에서 지역 내 어린이집 5곳을 초청하여 원아와 교사 등 170여 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환경인형극’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미래세대인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생활습관과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쉽고 재미있게 알리기 위한 것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전남지사,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ESG 가치 실현을 위해 뜻을 모아 프로그램을 준비하였다. 이날 공연은 흥미진진한 인형극을 통해 ■올바른 약 복용 및 폐기 방법 ■재활용 분리배출 방법 등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수칙을 소개했다. 이를 통해 아이들에게 건강한 삶과 탄소중립 실천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특히 인형극 중간에 아이들이 직접 참여해 분리수거를 실천해 보는 시간을 가지며 탄소중립 실천이 어렵지 않음을 몸소 체험했다. 아울러 인형극에 등장한 캐릭터 스티커로 구성된 교육 자료를 나눠주어 어린이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과 환경보호를 꾸준히 실천할 수 있도록 관심을 유도하였다. 박명옥 병원장은 "이번 공연을 통해 어린이들이 건강과 환경의 소중함을 자연스럽게 배우고, 생활 속 올바른 습관으로 이어지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의료기관으로서 건강과 환경의 가치를 확산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역 응급의료 발전을 위한 산학협력 협약

8월 28일 청암대학교 응급구조과와 지역사회 응급의료체계 발전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남 동부권 권역응급의료센터이자 재난거점병원인 우리 병원의 전문 임상 현장과 대학의 전공 교육을 연계해, 예비 응급구조사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응급의료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앞으로 ■전문 응급구조사 양성 교육 및 실습 지원 ■임상현장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응급·재난의료 분야 상호 협력 ■교육·연구 및 시설·자원 상호 활용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우리 병원은 중증응급환자 진료와 재난의료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현장에서 응급 처치 과정을 직접 체득하고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박명옥 병원장은 "청암대학교 응급구조과와 협력하여 지역사회 응급의료체계 발전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일반인 대상 호스피스·완화의료 교육 개최

8월 20일부터 21일까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일반인을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 교육’을 시행했다. 이번 교육은 호스피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널리 알리고 그 가치를 바로 세우는 데 주안점을 두고 진행되었으며, 총 49명의 교육생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교육에는 다양한 사연과 동기를 가진 지역민들이 함께했다. 10년 전 세운 삶의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참여한 이부터 암 투병 이후 삶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고자 한 이, 만학도로서 이론으로 접했던 호스피스를 현장 실무자의 목소리로 직접 듣고자 찾아온 이까지 참여 배경은 다양했다. 교육생들은 매 시간에 걸쳐 진행된 프로그램마다 큰 만족감을 드러내며, 삶을 대하는 태도에 큰 변화가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교육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나누는가 하면, 삶의 힘든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마음에 새긴 교육 내용을 꺼내어 마음을 다잡는 계기로 삼겠다고 하였다. 우리 병원은 앞으로도 지역 사회 내에서 생애 말기 돌봄에 대한 존엄한 가치를 전파하고 올바른 인식 확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 호스피스완화의료팀장 표수진 베드로 수녀



신임 진료과장 소개



재활의학과
박광복 과장

전문분야

뇌졸중 재활, 외상성 뇌손상 재활, 척수손상, 절단재활, 근골격계 재활(통증, 수술 후 재활 치료), 신경계 손상 재활(신경근전도 검사)

약력

조선대학교 의학과 학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인턴 수련
세브란스병원 레지던트 수련
해남종합병원 재활의학과 과장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 재활센터 센터장



재활의학과
강민석 과장

전문분야

뇌졸중 재활, 외상성 뇌손상 재활, 척수손상, 절단재활, 근골격계 재활(통증, 수술 후 재활 치료), 신경계 손상 재활(신경근전도 검사)

약력

카이스트 생명과학 학사
가톨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
가톨릭대학교 중양의료원 인턴 수련
가톨릭대학교 중양의료원 레지던트 수련
곡성군 보건의료원 재활의학과 과장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 재활의학과 과장
학회활동
2020년 대한신경근골격초음파학회 최우수 구연상

전문의 초대석

흥미로운 혈관 수술의 역사 그리고 미래 (2)

인조혈관의 개발, 현대적 혈관외과를 발전시키다

제1, 2차 세계대전 중 폭격으로 혈관이 통째로 날아가 버린 군인들에게는 꿰맬 혈관조차 남아 있지 않았고 끊어진 혈관을 이어줄 대체재가 필요했습니다. 1952년, 컬럼비아 대학의 아서 부히스(Arthur Voorhees) 박사는 우연한 기회로 이 문제의 돌파구를 찾게 되었는데, 심장 안을 관찰하기 위해 심실에 넣어둔 비단 봉합사에 피가 닿자, 미세한 구멍들이 혈전으로 메워지며 그 위로 새로운 혈관 세포가 덮는 현상을 목격한 것입니다. 부히스 박사는 당장 아내의 재봉틀을 빌려 나일론 천을 둥글게 박아 최초의 인공혈관을 만들었고 동물실험을 통해 혈관 대체재로 유용함을 증명하였습니다. 이런 연구를 바탕으로 1954년에는 심장혈관외과의 거장 디베키(Michael DeBakey) 박사가 당시 최신 합성 섬유였던 '다크론(Dacron)'으로 인공혈관을 만들었고 본격적인 대동맥 수술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림 4. 디베키 박사가 대동맥수술에 쓸 인조혈관을 직접 재단하는 장면

1970년대에는 우리가 흔히 등산복 소재로 아는 테플론(Gore-Tex) 소재의 인조혈관이 개발되어 혈관우회수술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조혈관의 개발과 발전은 대동맥을 포함한 모든 혈관의 수술을 가능하게 하여 혈관 수술의 또 하나의 혁신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중재적 시술, 혈관 수술의 패러다임을 바꾸다

1964년 1월, 오레곤 대학의 찰스 도터(Charles Dotter) 박사는 다리 혈관이 완전히 막혀 고사가 진행되던 82세의 여성 환자를 만났습니다. 도터 박사는 대퇴동맥을 통해 가느다란 플라스틱 관(카테터)을 밀어 넣어 막힌 곳을 물리적으로 뚫어내는 데 성공하여 중재적 시술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 아이디어를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킨 이가 안드레아스 그윈트지히(Andreas Grüntzig) 박사입니다. 그는 카테터 끝에 초소형 풍선을 달아 좁아진 심장 혈관을 넓히는 풍선 확장술을 고안했습니다. 1977년 9월, 스위스 취리히에서 38세의 심한 협심증 환자에게 첫 관상동맥 풍선 확장술이 시도되었습니다. 그윈트지히가 협심증 환자에게 풍선 확장술을 성공적으로 끝마친 순간은 메스를 들던 혈관외과 의사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 심장병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꾼 역사적 순간이 되었습니다.

좁아진 혈관을 풍선 카테터로 넓혀도 몇 달 뒤면 혈관이 다시 오그라드는 재협착이 자주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1980년대 후반 훌리오 팔마즈(Julio Palmaz) 박사 등이 혈관 내벽을 지탱하는 금속 그물망(스텐트)을 도입하며 풍선 확장술 재협착의 가능성을 현저히 낮추



심장혈관흉부외과
오정우 과장
약력
전남대학교 의학과 졸업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원 졸업
전남대학교병원 수련
흉부외과 전문의
외상학 세부전문의
국립목포병원 흉부외과 과장
상가롤로병원 흉부외과 과장
미래로2병원 흉부외과 과장
제주한라병원 권역외상센터 과장
현재 상가롤로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과장
전문분야: 말초동맥질환, 정맥질환(하지정맥류), 동정맥루조형수술, 흉부외상, 손다한증

게 되었습니다. 풍선 확장술 및 스텐트 삽입술은 현재 심장혈관 질환의 표준 치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과거 시술이 어려웠던 복잡한 심장혈관질환 치료까지 점차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앙브루아즈 파레, 인류를 소작의 고통에서 구하다

이 잔혹한 치료법에 종지부를 찍은 인물이 바로 16세기 프랑스의 군의관 앙브루아즈 파레(Ambroise Paré)입니다. 중군 의사였던 그는 지혈을 위한 끓는 기름이 부족해지자, 고육지책으로 달걀노른자와 장미유를 섞은 고약을 부상병들의 상처에 바르게 하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기름으로 지진 병사들은 고열과 염증으로 신음한 반면, 고약을 바른 병사들은 통증이 덜하고 상처가 아문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파레는 끔찍한 소작법을 과감히 폐기했습니다. 대신 고대 로마의 문헌에서 언급되었던 손상된 혈관을 직접 바늘과 실로 묶는 '혈관 결찰술'을 현장에 도입했습니다. 이후 절단 수술의 생존율은 비약적으로 상승했고 현대적인 혈관 외과수술의 기틀이 되었습니다.



그림 5. 풍선 확장술 및 스텐트 삽입술

로봇과 하이브리드 시술, 혈관 수술의 미래

오늘날의 혈관 치료는 외과적 수술과 중재적 시술의 경계가 무너진 '하이브리드(Hybrid)'수술의 시대입니다. 실시간 혈관 투시 장비와 로봇 제어 시스템이 갖춰진 첨단 하이브리드 수술실에서 외과 의사와 인터벤션 의사가 한 팀이 되어 수술과 중재 시술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환자의 신체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주 최근에는 하이브리드 시술과 더불어 외과 의사의 손을 대신해 정교하게 작동하는 로봇 팔이 수술을 대신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인공지능의 지원을 받은 로봇수술이 보편화된다면 혈관 수술은 더욱 더 한 차원 높게 발전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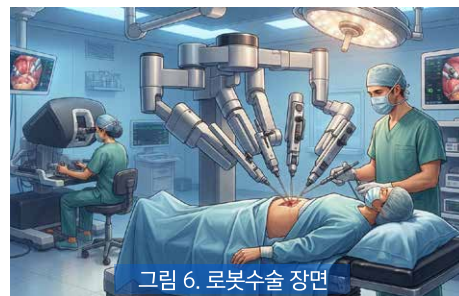


그림 6. 로봇수술 장면

불로 혈관을 지지던 소작술에서 시작된 혈관 수술은 미세한 바늘과 실, 그리고 합성 섬유를 이용한 인조혈관과 금속 스텐트, 로봇 수술 및 하이브리드 수술에 이르기까지 인류가 고통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과학기술의 발전이 만들어낸 도전의 역사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혈관 수술 분야는 가늘고 정밀한 로봇 수술 기구의 개발과 인체 조직과 완벽히 동화되는 생체 흡수성 신소재 개발을 통해 끊임없이 진화하며 인간의 소중한 생명선, 혈관을 지켜내기 위한 끊임없는 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저귀 발진약

효능 · 효과

기저귀를 차는 부위에 생기는 접촉피부염의 일종으로, 기저귀 발진의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로, 피부에 장벽 역할을 해서 자극과 마찰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거나, 염증을 줄이거나, 진균 감염을 치료하는 목적의 외용제가 사용된다.

종류

피부 장벽 제품

경증~중등도의 기저귀 발진에 우선 사용하도록 추천되며, 화학적 자극이나 수분에 피부가 직접 접촉하는 것을 막아주고 마찰을 줄여준다. 칼라민, 산화아연이 의약품*으로 사용되며, 다른 약물들과 복합제로 사용되기도 한다.

국소 스테로이드제(부신피질호르몬제)

■ 작용강도 약한 국소 스테로이드제 : 피부 장벽 제품 사용으로 나아지지 않는 기저귀 발진의 염증을 감소시키는 목적으로 사용하며, 0.5% 히드로코르티손이 기저귀 발진약으로 사용된다.

■ 작용강도 강한 스테로이드제 : 밀폐된 상처에 사용할 경우 전신 흡수로 인한 부작용 가능성 있어, 기저귀 발진에 사용하지 않음.

피부 장벽 제품과 함께 사용 시에는 국소 스테로이드제를 먼저 바른 다음 피부 장벽 제품을 사용한다.

국소 항진균제

이차적으로 칸디다균에 감염된 칸디다성 기저귀 피부염에는 국소 항진균제가 사용된다. 피부 장벽 제품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 권장되며, 국소 항



진균제를 먼저 바른 다음 피부 장벽 제품을 사용한다. 국소스테로이드제와 항진균제 복합제는 기저귀 발진에 사용하지 않는다.

종류	약물	제품 예
피부 장벽 제품	산화아연	보소미
	산화아연+칼라민	칼라민
국소 항진균제	이소코나졸	트라보젠크림
	테르비나핀	라미실크림
기타성분	클로트리마졸	카네스텐크림(2세 이하 금지)
	덱스판테놀	비판텐

용량 및 용법

1일 1~수회 지시된 횟수에 따라 환부에 바른다. 국소 스테로이드제(부신피질호르몬제)나 국소 항진균제를 피부 장벽 제제와 함께 사용할 때는 약물의 흡수가 잘 되도록 먼저 바른 다음 피부 장벽 제제를 사용하도록 한다.

부작용

■ 발진, 발적(붉게 부어오름), 가려움, 자극감

출처: 약학정보원 | 약제팀 신유리 약사

추석 맞아 주암면 구산마을 어르신 건강 돌봐



우리 병원 의료봉사단은 추석을 맞이하여 9월 5일 순천시 주암면 구산마을을 찾아 의료봉사 활동을 펼쳤다. 이번 활동은 순천시가 추진하는 어르신 생활복지 강화 및 어르신 일상돌봄 확대 정책에 발맞추어,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농촌 마을 주민들의 건강을 살피고 명절의 온정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봉사에는 김건평 의료봉사단장(비뇨의학과)을 비롯해 조은미 과장(신경과), 이승욱 과장(영상의학과) 등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총 21명의 단원이 참여했다. 구룡관과 경로당에 꾸려진 임시진료소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혈압·혈당 체크부터 전문적인 진료와 투약, 수액 치료, 복부초음파 검사까지 촘촘한 의료서비스가 펼쳐졌다.

이날 하루 동안 마을 주민 57명이 찾아와 진료를 받았으며, 특히 복부초음파(30명)와 수액 주사(44명)는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봉사 현장에는 전남사회복지협의회에서 후원한 파스와 성가롤로자선회가 후원한 빵과 음료수가 전해져 훈훈함을 더했다. 더불어 김동영 주암면장이 봉사현장을 찾아 주민들을 살피고 의료진을 격려했다.



구산마을 조봉익 이장은 “여기까지 찾아오셔서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진료를 베풀어 준 성가롤로병원 의료봉사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평소 접하기 힘든 복부초음파 검사까지 꼼꼼히 챙겨주셔서 봉사단을 기다렸던 주민분들이 매우 만족해하고 기뻐했다”고 말했다.

김건평 의료봉사단장은 “병원 방문이 쉽지 않은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진료 받으시는 모습을 보고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꾸준히 의료봉사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사회복지팀 임소는 사회복지사



“여러분의 소중한 나눔을 도움이 필요한 환자에게 희망으로 전하겠습니다.”

성가롤로자선회는 치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회, 경제적 이유로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독거노인, 만성·중증질환자, 외국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진료비를 지원하고, 국내외 다양한 지역사회 연계 사업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구분	지원 내용	금액(원)
의료비	입원/외래/약제비	14,355,290
	이송비, 간병 물품	4,775,000
지역 공헌	다동이 결연	1,200,000
	지역아동센터	16,059,000
의료 봉사	국내 의료봉사	996,600
퇴원 환자 사후관리	생계비 지원	1,400,000
해외 지원	페루 아동 식비	9,989,527
행사비	바자회 준비	570,500
후원금 관리	후원금 관리료	1,192,684

내용	금액(원)
이월금	91,800,852
후원금	51,974,090
Open book	3,532,775
이자, 마일리지	4,480
기타수입	60,000
지출금	50,538,601
이월금	96,806,596

♥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매월 일정 금액으로 나눔을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자분들께서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 후원 문의 : 사회복지팀 061)907-7740~2

■ 후원 계좌 : 광주은행 700-107-478105

(재)천주교가리따스수녀회(자선)



성가롤로자선회 후원자 명단 (2026년 1월~6월)

강경이, 강경희, 강다겸, 강민서, 강민영, 강보람, 강소이, 강수진, 강순남, 강유진, 강은진1, 강은진2, 강익, 강종수, 강진원, 강종태, 강태희, 강현숙, 강현중, 강형환, 강효경, 강혜진, 고경숙, 고다은, 고승인, 고희연, 공민영, 공현주, 광다혜, 광미정, 광민섭, 광상미, 광윤아, 구병기, 권성광, 권순진, 권정규, 권혜주, 기광서, 김가연, 김경수, 김경애, 김경원, 김계현, 김광수, 김광임, 김규훈, 김기쁨, 김기연, 김나영, 김나현, 김노을, 김누리, 김다은, 김다원, 김다은1, 김다은2, 김다현, 김다혜, 김다희, 김동은, 김동현, 김명중, 김명호, 김미소, 김미양, 김미자, 김미정, 김미주, 김미혜, 김민경, 김민서, 김민지1, 김민지2, 김반지, 김병욱, 김보임, 김복은, 김상민, 김선아, 김선영, 김선중, 김선화, 김성수, 김성희, 김세영, 김소연, 김소영1, 김소영2, 김수민, 김수정, 김수진1, 김수진2, 김수현, 김순옥, 김승만, 김시규, 김아람, 김영민1, 김영민2, 김영빈, 김영웅, 김영진, 김예지, 김옥이, 김원석, 김유경, 김유진, 김윤이, 김윤정1, 김윤정2, 김윤주, 김윤진, 김은별, 김은비, 김은선, 김은아1, 김은아2, 김은영, 김은지, 김은진1, 김은진2, 김은희, 김익수, 김인아, 김일승, 김자영, 김재민, 김재영, 김재이, 김재훈, 김정민, 김정숙, 김정호, 김정화, 김종찬, 김주영1, 김주영2, 김주옥, 김주은, 김준길, 김지수, 김지선, 김지원, 김지혜, 김진, 김진아, 김진일, 김진희, 김찬순, 김창균, 김창수, 김채연, 김채영, 김채은1, 김채은2, 김채은3, 김치중, 김춘미, 김태균, 김태희, 김한솔, 김해민, 김해성, 김현서, 김현숙, 김현아1, 김현아2, 김현정, 김현중, 김형락, 김혜란, 김혜원1, 김혜원2, 김홍주, 김화진, 김효은, 김효정, 김희경, 김희자1, 김희자2, 김희진, 김희태, 나재형, 남미옥, 남승혜, 남은경, 도현화, 도혜선, 류계석, 류성민, 류술이, 류연경, 류진아, 마상경, 마신애, 마준호, 명유라, 명환호, 문대성, 문라미, 문명숙, 문보경, 문보림, 문숙희, 문영희, 박서아, 문은영, 문지영, 문채현, 문현주, 민경태, 박가희, 박규숙, 박명주, 박명옥, 박명희, 박모선, 박문수, 박미나, 박미숙, 박미옥, 박민규, 박민근, 박민선, 박병록, 박보람, 박상연, 박상진, 박상천, 박서이, 박서영, 박서아, 박선미, 박선아, 박선연, 박성지, 박소연, 박소진, 박승대, 박수미, 박수빈, 박수아, 박수정, 박순자, 박영랑, 박영미, 박영성, 박예빈, 박용인, 박유미, 박유영, 박윤중, 박은아, 박은옥, 박재우, 박종복, 박중수, 박주연, 박주용, 박지담, 박지민, 박진영, 박지혜1, 박지혜2, 박지혜3, 박진경, 박진영, 박찬희, 박천길, 박채이, 박태영, 박현선, 박현숙, 박현철, 박혜경, 박혜승, 박혜인, 박희정, 배민우, 배서아, 배영옥, 배영준, 배옥란, 배요한, 배정현, 배지은, 배진희, 배태남, 배태윤, 배화영, 배효정, 백명화, 백수진, 변지여, 서경희, 서나래, 서라미, 서명교, 서미애, 서미영, 서미정, 서민정, 서민화, 서범승, 서보미, 서보희, 서승형, 서영선, 서영호, 서영혜, 서우정, 서원용, 서유리, 서은선, 서은채, 서재현, 서재희, 서지원, 서찬영, 서현지, 서현화, 선수민, 선정순, 선현숙, 성경정, 성지영, 성혜민, 소은지, 소자영, 손은숙, 손지연, 손한나, 송명진, 송민서, 송병섭, 송영은, 송용선, 송우철, 송인, 송점례, 송종미, 송학동, 신나라, 신미혜, 신선화, 신솔빈, 신은아, 신지예, 신철호, 신행식, 심명진, 심윤경, 심준호, 심지현, 심천실, 안경록, 안도연, 안승희, 안연주, 안옥진, 안은초, 안채영, 양기현, 양동호, 양민지, 양성금, 양은실, 양정하, 양춘화, 여정혁, 여효은, 염윤지, 염현인, 오경자, 오다영, 오대곤, 오민정, 오시은, 오서진, 오세은, 오유경, 오유정, 오은정, 오창호, 오채린, 오행선, 오현근, 옥영철, 왕미라, 우원주, 우지선, 우현희, 원내화, 위재정, 위치량, 유규동, 유미아, 유소연, 유아람, 유윤정, 유은영, 유정아, 유진영, 유하나, 유효정, 윤문희, 윤사라, 윤승현, 윤이나, 윤준성, 윤지은, 윤현아, 이가희, 이경영, 이나예, 이도경, 이대현, 이라연, 이마리아, 이명성, 이문선, 이미경, 이미희, 이마라, 이민자, 이민혜, 이보라, 이상미, 이상준, 이서현, 이선애, 이선영, 이선옥, 이성남, 이세미, 이세창, 이소영1, 이소영2, 이소은, 이슬기, 이슬빈, 이승희, 이영미, 이영선1, 이영선2, 이영재, 이유라, 이유빈, 이윤미, 이은경, 이은영1, 이은자, 이은진, 이은정1, 이은정2, 이이레, 이이숙, 이정석, 이정은, 이조은, 이종순, 이종춘, 이주은, 이주하, 이지연, 이지영1, 이지영2, 이지영3, 이지훈, 이창백, 이채현, 이천오, 이춘광, 이창호, 이초희, 이태완, 이태윤, 이한별, 이혜란, 이현숙, 이현실, 이형재, 이혜민, 이혜원, 이혜진, 이희연, 이희자, 임경선, 임로사, 임미연, 임성실, 임세리, 임소망, 임소은, 임수옥, 임아람, 임연수, 임윤미, 임준영, 임진, 임정화, 임향주, 임혜연, 장보리, 장보미, 장수, 장수아, 장애란, 장영수, 장은옥, 장주경, 장지영, 장지현, 장진미, 장태주, 장효경, 전동권, 전명란, 전미혜, 전영호, 전예림, 전주영1, 전주영2, 전지영, 정규하, 정다빈, 정다은, 정다연, 정단비, 정동기, 정명숙, 정미라, 정미선, 정미옥, 정미진, 정민주, 정민지, 정복덕, 정상업, 정선임, 정성태, 정소영, 정수화, 정슬비, 정승재, 정여원, 정연희, 정영아, 정예은, 정유경, 정유진, 정은라, 정은주, 정은희, 정정숙, 정제민, 정지연1, 정지연2, 정준주, 정평수, 정현, 정현희, 정혜경, 정혜선, 정혜원, 정혜임, 정효순, 정효정, 정희정, 정희중, 조경자, 조고훈, 조미남, 조미라, 조미정, 조민석, 조민희, 조성심, 조세희, 조수빈, 조수정, 조아라, 조아혜, 조안연, 조영규, 조영심, 조유라, 조은미, 조은아, 조은영, 조은희, 조장현, 조정옥, 조주만, 조진경, 조하나, 조한경, 조현담, 조현승, 조현영, 조희근, 조희정, 주경의, 주다인, 주신영, 주원진, 주정현, 지은주, 진성남, 차세은, 차현주, 차현주, 채규성, 채경이, 채미진, 채지우, 채훈서, 천경옥, 천영경, 최가연, 최다희, 최민규, 최민지, 최빛나, 최서윤, 최선화, 최성훈, 최성희, 최수희, 최승미, 최아름, 최연우, 최요심, 최원제, 최용운, 최유리, 최유진1, 최유진2, 최은경, 최은정, 최이슬, 최인숙, 최정원, 최주영, 최지영, 추미정, 탁형영, 표수진, 하모니카, 하정례, 하태주, 한덕순, 한솔, 한수미, 하선진, 한예림, 함은숙, 허남순, 허다연, 허순주, 허유빈, 허정임, 허희정, 현다솔, 홍지희, 홍재원, 홍진희, 황기택, 황성갑, 황숙남, 황신혜, 황우경, 황지은, Fr. Jaime Palma

단체: (주)맥서브, 오픈북, 한마음간병센터, 할리스, 효성의로기 / 동전모금함: 원무팀, 고객지원팀 / 빼아따스식대: 배요한, 심향수, 박종선, 김종인, 베드로, 박수미, 유종필, 정수현, 장곤희, 정지은, 정지은, 김현주, 위근복, 이숙희, 박시연, 윤혜주, 정보람, 이정희, 박두현, 정영숙, 지동섭, 윤해국, 익명 5명 물품후원: 크리스피크림도넛, 광양LF스퀘어점, 방배종합사회복지관

가롤로 퀴즈

■ 아래의 퀴즈를 풀어주세요. 정답은 이번호 병원보 속에 있습니다.

정답자 5명을 추첨하여 **뚜레쥬르 교환권(1만원)**을 선물로 드립니다.
직원식당에 마련된 응모함에 **매월 말일까지** 넣어주세요.

- 전남 동부권 주민들의 생명을 지켜온 우리 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가 8월 23일로 지정 몇 주년을 맞이했는가?
- 1952년 아서 부히스 박사가 최초의 인공혈관 제작에 활용한 합성 섬유(천)는 무엇인가?
- 우리 병원은 8월 26일 별관 성심홀에서 지역 내 어린이집 5곳을 초청해 어린이 환경○○○을 개최했다.
- 이번 달 병원보에 실리지 않은 글은 무엇인가?
① 뜨개질 동아리 '털뽕치', 책갈피 판매 수익금 50만 원 기부
② 지역 응급의료 발전을 위한 산학협력 협약
③ 기저귀 발진약
④ 심혈관중환자실 축복식

9월호 가롤로 퀴즈 정답

- 1.
- 2.
- 3.
- 4.

수신 : 홍보팀

소속 :

직종 :

성명 :

직통번호 :

가장 좋았던 기사 및 코너는?

독자의 목소리(여러분의 의견을 소중히 듣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단맛과 신맛의 환상적인 조화 ‘사과’

사과는 식이섬유소가 다량 함유되어 유해 콜레스테롤을 배출하고, 칼륨 성분이 나트륨 배출을 도와 고혈압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준다. 사과껍질에도 ‘셀룰로스’와 식이섬유의 일종인 ‘펙틴’이 들어있어 장내 유익한 세균을 늘려 소화를 돕고 변비 예방에 효과적이다.

<구입과 보관>

사과는 들었을 때 단단하고 묵직한 것이 신선하다. 햇빛을 잘 받는 쪽지와 그렇지 않은 쪽받침 부분까지 골고루 착색되고 밝은 느낌의 것이 좋다. 대체로 쪽지가 잘 붙어 있는 것이 싱싱한데, 쪽지가 시들고 잘 부서진다면 수확한 지 오래된 것이다. 냉장고에 보관할 때는 키친타월이나 신문지에 싸서 다른 과일이나 채소와 분리해 둔다.

2. 아삭한 식감, 시원한 단맛 ‘배’

사과와 함께 가장 인기 있는 가을 과일인 배는 비타민과 섬유소가 풍부하고 폴리페놀 등 항산화 성분이 많아 면역력 증진에 좋다. 또 80% 이상 수분으로 구성되어 갈증을 해소해 주고, 100g당 50kcal 정도로 저열량이라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좋다. 연육 효소가 있어 고기 요리에 넣으면 육질이 부드러워지고, 단맛이 강해 요리의 단맛을 첨가하고 싶을 때 이용하기도 한다.

<구입과 보관>

배는 만져 보아 단단하고 무른 부분이 없는지 살핀다. 들었을 때 적당히 무게감이 있어야 수분이

많고 당도가 높다. 빛깔이 밝고 광택이 나면 신선한 상태이다. 배는 부딪히면 쉽게 물러서 금세 상하므로, 신문지나 키친타월에 싸서 둔다.

3. 약이 되는 귀한 과일 ‘무화과’

무화과는 열량이 적고 비타민과 무기질,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몸에 활력을 준다. 양질의 단백질이 여성 호르몬 분비를 촉진해 생리통 완화와 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준다. 무화과는 껍질이 딱딱하지 않고 부드러기 때문에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섭취한다. 껍질의 까끌까끌한 부분을 제거하고 싶다면 필러로 얇게 벗겨 내고 숟가락으로 떠먹는다.

<구입과 보관>

적갈색이 전체적으로 고르게 퍼져 있고, 갈라진 부분이 마르지 않은 상태여야 신선하다. 무화과는 상온에서 최대 5일까지 보관할 수 있으나, 껍질이 약해 과육이 쉽게 무르고 변질되므로 빨리 먹는 것이 좋다. 무화과는 주로 설탕에 졸여 잼으로 만들어 먹는 편이며, 생무화과를 보관할 때 온도는 1~5℃가 적당하다.

4. 고소하고 달큰한 맛 ‘고구마’

고구마는 식이섬유가 다량 함유되어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식사 대용이 되고, 혈당이 낮아 다이어트에도 좋다. 특히 고구마를 자른 단면에서 나오는 ‘알라핀’이라는 흰색 진액은 변을 묽게 만들어 배변 활동을 도와준다. 칼륨의 함량이 많아

나트륨을 배출해 주므로 짠맛 음식과 함께 먹으면 혈압 상승을 억제하고 영양을 보완할 수 있다.

<구입과 보관>

고구마는 표면이 매끈하고 단단하며 흠집이 없는 것이 좋다. 보관 시 부패하거나 썩이 트기 쉬우므로 상자에 구멍을 뚫어 통풍이 잘 되도록 하며, 직사광선이 없고 바람이 잘 드는 곳에 둔다. 냉장 보관할 때는 신문지나 키친타월에 싸서 신선실에 놓고, 굵거나 찢 고구마를 보관할 때는 두세 개씩 비닐봉지에 담아 냉동 보관한다.

5. 젊음을 돌려주는 신비한 맛 ‘석류’

석류의 빨간 색소인 ‘리코펜’ 성분은 항산화 작용을 해 노화 방지에 효과적이다. 천연 식물성 ‘에스트로젠’이 풍부해 여성호르몬 분비를 촉진하고 비타민이 감기 예방에 도움을 준다. 석류 껍질에 들어있는 ‘탄닌’은 고혈압과 동맥 경화를 예방해 준다. 석류는 토마토와 함께 먹으면 비타민 A를 보충할 수 있다.

<구입과 보관>

겉껍질이 약간 거칠면서 단단하고 상처가 없는 것을 고른다. 들었을 때 묵직한 느낌이 드는 것이 좋는데, 무거울수록 과즙이 풍부하다. 보관할 때는 하나씩 랩으로 감싸 냉장하면 15~20일 정도 보관할 수 있다. 석류의 윗부분을 잘라 반으로 가른 후 알갱이들을 골라내어 밀폐용기에 담아 냉장하면 꺼내어 먹기 편리하다.

영양팀 김진아 영양사 | 출처: 농식품 소비공감

336호

8월

가롤로퀴즈정답 & 당첨자(5명)

최승미 | 질향상팀 조현승 | 감염관리팀
정다운 | 인사팀 이미소 | 응급병동
이대연 | 심뇌혈관운영지원팀
* 이번 달 퀴즈를 추천한 부서는 5B 병동입니다.

1. 우리 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7월 30일에 발표한 5차 환자경험평가 결과 호남권 종합병원 중에서 몇 위를 달성했는가? 1위
2. 1912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카렐이 고안한 것으로, 혈관 끝을 세 군데로 잡아당겨 팽팽한 삼각형 모양으로 만든 뒤 꿰매는 이 봉합법은 무엇인가? (5글자) 삼각봉합법
3. 7월 9일 별관 성심홀에서 2025년에 입사한 신규 간호사 76명을 위한 뜻깊은 돌잔치가 개최되었다.
4. 이번 달 병원보에 실리지 않은 글은 무엇인가?
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하는 어린이 인형극 개최
② 급성기뇌졸중 적정성 평가 '1등급' 획득
③ 전남동부권 심뇌혈관질환 안전망 구축 본격화
④ 고흥군, 고흥소방서와 응급의료 협약 체결

Cirolio HOSPITAL



간호부 8B 병동 전체

- 가족을 돌보는 듯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함과 상냥함이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입원 기간 내내 “오, 이 병원 괜찮네” 하는 탄복이 절로 들었습니다.
- 생사가 오기는 환자와 보호자에게 많은 힘이 되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간호부 심혈관중환자실 전체

- 퇴원해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중환자실에서 수고하고 계실 간호사 선생님들의 모습이 눈에 선하며 잊을 수가 없습니다.
- 수도권 대형 병원으로 가야 하나 고민했던 마음은 뛰어난 사명 의식을 보여준 성가롤로병원 덕분에 어느새 병원에 대한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진료부 신장내과 정권 과장

- 환자의 말을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제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려 해주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환자를 중심에 두고 진료하시는 과장님의 마음과 신뢰를 주는 설명 방식, 지속적으로 살펴봐 주시는 관심 덕분에 치료 과정 내내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간호부 호흡기내과 최가연 간호조무사

- 힘든 내색 없이 항상 긍정적이며 밝게 웃으며 매사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모습에 친절 직원으로 추천합니다.
- 과 특성상 민원이 많음에도 환자 문의 시 성실하게 설명해 주고, 타 부서와의 협조 부탁에도 최선을 다해 알아봐 주십니다.

이달의 친절직원

복음 묵상 성 미카엘 성 가브리엘 성 라파엘 대천사 축일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내리듯: 병상에서 만나는 세 대천사

9월 29일이 되면 교회는 성 미카엘, 성 가브리엘, 성 라파엘 세 분의 대천사를 함께 기리는 축일을 지냅니다. 세 대천사 모두 성경 안에서 이름으로 불리는 몇 안 되는 천사이며, 그 이름 자체가 각자의 소명을 드러냅니다. 미카엘은 ‘누가 하느님과 같으랴’, 가브리엘은 ‘하느님의 힘’ 또는 ‘하느님의 사람’, 라파엘은 ‘하느님께서 치유하신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세 대천사의 정체가 드러나는 대목을 요한복음에서 만나게 됩니다. 나타나엘은 필립보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는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홀로 있었습니다. 아마도 율법을 묵상하거나 조용히 기도하던 자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그가 오기도 전에 이미 그를 ‘보고’ 계셨습니다. 이 ‘보심’은 단순한 시각이 아니라, 사람의 속마음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느님의 눈길입니다. 나타나엘은 이 한마디에 “스승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에 이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서는 그보다 ‘더 큰 일’을 약속하십니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느님께서서는 결코 사람을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미카엘의 힘으로 우리를 지켜 주시고, 가브리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라파엘의 손길로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분이십니다. 세 대천사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하늘과 땅 사이, 하느님과 우리 사이를 오르내리며 그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카엘 대천사 - ‘미카엘’이라는 이름은 ‘누가 하느님과 같으랴’라는 뜻입니다. 그는 하느님의 백성을 위협하는 어둠의 세력과 맞서 싸우는 군센 수호자로 성경에 나타납니다(다니 10; 묵시 12,7-9). 병이 주는 두려움, 불안한 밤, 다가올 검사와 결과에 대한 근심은 우리를 짓누르는 또 다른 어둠일 수 있습니다. 미카엘 대천사는 바로 그 두려움 한가운데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듯 여러분 곁을 지켜 줍니다.

가브리엘 대천사 - ‘가브리엘’은 즈카르야에게 세례자 요한의 탄생을, 마리아께 구세주의 잉태를 전한 대천사입니다(루카 1,19,26). 그는 언제나 “



두려워하지 마라”는 말과 함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옵니다. 병으로 지친 마음에는 때로 “다 잘될 것이다”라는 말조차 공허하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브리엘이 전한 소식은 막연한 위로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실제적인 약속이었습니다.

라파엘 대천사 - ‘라파엘’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하느님께서 치유하신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구약 토빗기에서 라파엘 대천사는 눈이 먼 토빗과 마음 깊이 상처를 지닌 사라를 찾아가, 처음에는 자신이 천사인 줄도 밝히지 않은 채 나그네의 모습으로 그들 곁에 머물며 함께 길을 걸었습니다(토빗 3, 5-12). 그 여정 끝에 토빗의 눈이 열리고, 사라를 짓누르던 두려움과 슬픔도 함께 풀렸습니다.

치유는 몸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라파엘 대천사가 토빗의 눈을 뜨게 하고 사라의 두려움을 풀어 주었듯, 하느님께서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과 함께 마음과 영혼까지 어루만지고 계십니다. 통증이 남아 있어도, 회복이 더디어도, 결과를 알 수 없어 불안해도, 여러분 곁에는 처음엔 알아보지 못했던 나그네처럼 조용히 동행하시는 손길이 있습니다. 완치라는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더라도, 마음의 두려움이 가라앉고 평화가 찾아오는 것 또한 라파엘 대천사가 전하는 하느님의 치유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로부터 라파엘 대천사를 병자와 여행자의 수호자로 공경해 왔습니다.

세 대천사는 이렇게 서로 다른 방식으로, 그러나 한마음으로 병상의 여러분을 감싸고 있습니다. 미카엘은 두려움 속에서 지켜 주고, 가브리엘은 함께 계신 하느님의 소식을 전하며, 라파엘은 몸과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줍니다. 요한복음에서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 하신 주님의 약속은, 바로 지금 이 병실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촌동성당 주락권(세례자요한) 신부

그림 출처: 위키피디아(Three Angels and Young Tobias- Fra Filippo Lippi. 1485)



수요강좌 유튜브 보러가기 ▶



성가롤로 병원TV

한국의 의료수준

예방의학과 전문의 박경수 센터장

성가롤로병원 외래진료 안내



대표전화 061)720-2000, 종합안내 061)720-2500,
방사선 암 치료 061)720-6900, 건강증진센터 061)907-7200~7203

성가롤로병원 발전기금 후원안내



성가롤로병원은 비영리 재단법인으로서 여러분의 귀중한 정성으로 불우환자의 지원과 지역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발전기금조성위원회와 발전기금 관리규정에 의해 엄격한 절차에 따라 기금을 운영관리함으로써 기부자님들의 고귀한 뜻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 발전기금 후원 계좌 | 예금주: (재)천주교가리따스수녀회
광주은행: 700-107-500533 광주은행: 1127-020-225740 농협: 317-0005-2620-81
- 후원문의 | 재무경영팀 ☎ 061)720-6420~1
- 후원 해 주시는 분에게는 세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병원 발전기금 기부자 (2026.8.1~8.31) 고희문, 김영진, 김영희, 김현중, 나재형, 동성메디스, 박종혁, 손일영, 서광하이텍, 엘에스메디칼, 신광메디칼, 전미해, 제이앤에스메디칼, 지성메디텍, 최윤영, 최임순, 최치환, 추태선, 호선약품, KFTCCMS, 익명 2명, CMS약정자 17명

* 이 외 매월 발전기금을 약정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받은 사랑을 나누고 싶습니다” 손일영 자원봉사자, 발전기금 1천만 원 기부



(왼쪽부터) 손일영 스텔라, 정찬식 세례자 요한 부부

호스피스병동 자원봉사자 손일영 스텔라 씨가 우리 병원에 발전기금 1천만 원을 기부했다. 손일영 씨는 작년에 건강검진을 통해 우연히 직장암을 발견했다. 호스피스병동 베드로 수녀의 권유로 외과 김영진 의무원장을 만난 손 씨는 “서울로 가야 하지 않겠냐”라는 주변의 우려를 뒤로하고 병원과 의료진을 믿고 치료에 전념했다. 28회의 방사선 치료를 마치고 진행한 항암 치료는 4회차 때 치료를 중단하고 싶다고 생각할 만큼 고통스러운 고비가 있었으나, 5·6회차 치료 후 종양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기적 같은 소식을 들었다. 손 씨는 “치료 과정을 겪으며 주변에 저를 아껴주는 분들이 참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제가 받은 사랑을 다시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어서 기부를 결심하게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은퇴 전 학교에서 보건교사로 재직하던 손 씨는 교직 생활 동안 월급의 일부를 아이들을 위한 나눔에 써오기도 했다. 평생 삶 속에서 나눔과 봉사를 실천해 온 손 씨의 기부는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

뜨개질 동아리 ‘털몽치’, 책갈피 판매 수익금 50만 원 기부

사내 뜨개질 동아리 ‘털몽치’가 뜻깊은 나눔을 실천했다. ‘털몽치’는 평소 뜨개질이 취미였던 5A 병동 황은혜 수간호사와 정복덕 책임간호사를 중심으로, 뜨개질을 배우고 싶어 하는 직원들이 모여 작년 10월에 결성한 동아리다. 현재 회원은 32명으로, 교대근무자가 많아 정기 모임보다는 퇴근 후 병원 회의실이나 카페에 삼삼오오 모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동아리 회원들은 최근 사회복지팀이 주관한 이웃돕기 기금 마련 도서바자회에 동참하기로 뜻을 모아 직접 뜨개질한 책갈피를 도서매대 한쪽에서 판매했다. 좋은 취지에 공감한 내원객들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판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졌다.

이번 바자회를 통해 마련한 수익금 50만 원은 9월 3일 성가롤로병원 자선회에 전액 기부됐다. 황은혜 수간호사는 “뜨개질은 조금만 배우면 누구나 근사한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성취감이 높은 취미”라며 “신입 회원을 상시 모집하고 있으니 편하게 문을 두드려달라”고 전했다.



아이들의 고사리손에서 피어난 나눔 신대유치원, 성가롤로병원 자선회에 후원금 전달

신대유치원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의료비를 위한 후원금 1,000,350원을 7월 22일 성가롤로자선회에 전달했다. 이번 후원금은 아이들이 유치원 텃밭에서 기른 작물과 각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기부받아 나눔장터를 열고 이를 아이들이 구매하는 과정을 통해 마련되어 그 의미를 더했다. 신대유치원은 아이들이 유아기 때부터 자연스럽게 나눔의 의미를 배우고, 협력·배려·공동체 의식을 키울 수 있도록 매년 나눔장터를 개최하고 그 수익을 지역사회에 기부하고 있다. 신대유치원 교사들은 “아이들이 이웃을 생각하고 나눔의 가치를 경험하는 시간을 통해 정성스럽게 모았다.”라며 “적은 돈이지만 성가롤로병원을 통해 가치 있게 사용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에 사회복지팀 조정옥 팀장은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의료비로 소중히 사용할 예정이다.”라는 말에 이어 “나눔을 실천하며 배운 따뜻한 마음이 아이들에게도 훌륭한 성장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